

“함께 도약해 수준높은 변화 가져올 것”

전주문화재단 제8대 최락기 대표이사 취임 기자간담회 가져

전주문화재단이 제8대 최락기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수준높은 변화를 예고했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팔복예술공장에서 최락기 대표이사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입 대표 인사 및 직무계획을 발표했다.

최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동시대 문화 예술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가치있는 삶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보편적 문화향유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전주 북부권(팔복산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창조생태계 거점을 구축하고,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사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동네 문화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전 생애(가족 등) 수요맞춤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예술인들이 미래 문화예술계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작품제작(창작), 발표(기획), 활동(실연) 등 전 과정을 세분화해서 지원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통합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익 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도 적극 지원하기로



전주문화재단은 2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최락기 대표이사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입 대표 인사 및 직무계획을 발표했다.

했다. 끝으로 융·복합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주문화재단의 하반기 주요업무 브리핑도 함께 진행됐다.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지의 전통성과 기존 관념을 넘어선 다양한 방식의 현대회화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현대회화, 미래를 만나다’ 전시, 9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예술로 GREEN 전주’ 전시, 11월 19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탄소섬유와 예술 매체의 접목을 시도해 탄소예술 장르를 개척한 ‘탄소예술 기획전’ 등을 계획

하고 있다. 또한 ‘전주예술놀이축제’, ‘미래문화도시 페스티벌’, ‘전주예술난장’ 등이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팔복권역에 문화예술을 싹 틔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면서 “특히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문화 향유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미래 기술과 문화를 융합한 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박캉스’ 로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나기

국립전주박물관, ‘박물관+박캉스’ 여름 실내 휴가 장소 주목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에서 보내는 특별한 ‘박캉스(박물관+박캉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와 더불어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와 「제32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展」이 열리고 있다.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는 오는 8월 19일까지, 「제32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展」은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또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연인문학 ‘시작(始作)’〉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마을 보물찾기〉, 〈문방사우를 찾아라!〉,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금산사로 소풍가요〉

가 준비돼 있다.

이어 8월 3일 문화행사 〈백드림 페인팅〉과, 8월 17일 문화공연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예정돼 있어 한여름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올여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특별전 관람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란다”면서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이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중국 관광객 위한 호남권 방한상품 개발 팸투어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9월 항주-무안 취향노선 연계 유치 최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8일 호남권 방한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9월 취향하는 항주-무안(릉에어) 노선을 연계한 중국관광객 ‘유커’ 유치를 통한 ‘호남권 방한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 총 25명이 참여했다.

주요 일정은 △무주 리조트에서의 숙박, △무주 태권도원의 시설과 태권도 견학, △남원 화인당에서의 한복체험, △전통 정원 남원 관광투어에서 역사 이야기 산책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이번 팸투어 참여자는 전북자치도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관광코스 등을 통해 호남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투어를 7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중국관광객에게 호남권 이미지를 확대하겠다”



며 “오는 9월 항주-무안 취향노선을 적극 활용해 전북자치도 방한 중국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호남권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중국 현지 여행사와 협력을 이어나 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2회 워라벨 가족학교’ 참여자 모집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오는 9월 21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회 워라벨 가족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라벨 가족학교’는 함께하는 육아를 통한 맞벌이·맞돌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워라벨 가족학교’에서는 도내 워킹맘·대디 가족 중 10가족을 모집해 아이들을 위한 쿠키 만들기, 동물 농장 관람 등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부모-자녀 간 소통 향상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워라벨 가족학교’는 10가족 선착순 모집에 정이며,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8월 1~3일 ‘달리는 국악 무대’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을 위해 ‘달리는 국악무대’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하루 1회 저녁 7시 30분부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내 야외공연장(운봉)에서 1시간 동안 펼쳐지며, 자연의 정취와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평온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여름방학의 추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8월 1일과 3일에는 △기악합주 신랫노래 △단막창극 심청가 중 황성올라가는 대목 △사물놀이 삼도풍물가락이 펼쳐지며, 2일에는 △민요 배우기 △무용 진도북춤 △판소리 입체창 춘향가 중 사랑가 △기악합주 금강산타령,



가 제공되며, 관람 이벤트로 특별한 기념품도 한정 수량으로 증정되며, 공연은 전 좌석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http://namwon.gugak.go.kr) 또는 전화(063-620-232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얼라이언스 회원사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7월 29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전북치유·의료관광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 사업을 추진해 전북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도내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협회, 외국인투자 유치기관 등이다.

가입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ontent@jb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되면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치유·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례회의와 분과회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얼라이언스 회원사 모집은 다양한 치유·의료관광 주체들과 협력해 전북의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유·의료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얼라이언스에는 유치분과와 지원분과 등 2개 분과에 총 21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광콘텐츠팀(063-230-7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이었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